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0일 월요일 음 3월 29일 (6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14~16°C, 낮 최고기온은 22~24°C에 머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other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and moonrise.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Table with 2 columns: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Rows show levels like 좋음, 보통, 나쁨.

주간예보 table with columns for daily weather and temperature (e.g., 17/22°C).

월드뉴스

중국 로켓 잔해 인도양 위에서 산산조각

대부분 불타고 일부 바다 추락



지난달 29일 발사된 창정-5B 로켓.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의 잔해가 9일 오전 10시 24분(베이징 시간)...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있는 만큼 창정-5B호 잔해 역시 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창정-5B호는 중국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우주발사체로, 우주 정거장 모듈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도에 따르면 잔해 대부분은 대기권에 들어온 뒤 낙하하면서 녹아 내렸지만 일부는 물드브 인근 인도양에 떨어졌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백록담

'제주아트플랫폼' 루프탑보다 급한 일



진 선희 부국장 겸 교육문화체육부장

그 시작은 2017년 9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합리적 운용 방안 모색' 포럼이었다.

원회에서 육성기금을 활용한 '재밋섬' 건물 매입 결정이 이뤄졌고, 5월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 같은 계약은 2018년 6월 28일 1차 중도금 10억원 지불 이후 멈춰 있었다.

행정 절차 중단 후 이 사안은 제주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고, 제주 지역 정당의 '배임 혐의' 검찰 고발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거였다.

약 4년에 걸친 여정을 이 지면에서 되짚는 건 지난 4월로 스무 돌을 맞은 문예재단이 과연 '제주아트플랫폼'을 꾸릴 능력이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다.

지난 4월 19일 문예재단이 요청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한 예다.

상 8층엔 라운지 바와 루프탑 야외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다.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가동 등 공간 운영을 고려하면 지금의 제주시 동광로 문예재단 건물을 매각해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건이나, 문화공간을 수익 시설로 접근한다는 비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이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건 '재밋섬' 매입에 왜 100억을 들여야 하는지, 재감정으로 매입가를 낮출 순 없는지 등 물증에 심증을 더한 일각의 시선에 대한 해소 또는 수용이 아닐까 싶다.

열린마당

소통과 청렴, 제주교육의 성장 토대



송 성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통지원관

최근 LH 임직원 불법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에 국회에선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들이 발의되고, 정부에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71.9%가 찬성, 교원은 95.2%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찬성 이유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 이유는 제도의 효과에 비해 관리비용이 너무 크고,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의 청렴·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

감자 밭에 드론 날다



오 상석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드론(무인항공기)의 쓰임새는 전 산업을 망라하고 그 효용은 말할 수 없다. 무선전파 이용 조종 또는 자율항법장치로 비행하며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사에도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방제, 예찰, 병해충 진단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은 방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며칠 전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주시 4-H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교육'을 추진했다.

실제 감자 재배포장에서 농업용 드론에 16ℓ 약제통을 탑재하고 방제를 실시했다.

드론 날다

명, 1시간이 소요될 작업이 조종사 1명이 15분 남짓한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다. 그중 농약 살포는 특히나 기피해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드론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효율적인 방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선 농업인은 자격 취득이 필요하고 항공방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무인항공기용 약제가 현저히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등록 약제 확대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드론 활용이 정착된다면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리모델링) and construction (건축) with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Wellnok (웰노크) water purifiers with promotional offers.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신제품) and quality inspection (감귤요목분양) with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information (농업농촌소식) and drone management fees.